



대흥사 13대종사 중 마지막 대종사이며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 스님 동상

# 초의 스님이 좋아한 차는 禪이 되었다

## 눈 24 해남 대흥사(大興寺)

일주문을 지나자 부도밭이 나온다. 그야말로 부도 '밭'이다. 부도 54기와 탑비 27기. 서산 대사(휴정:1520~1604)를 비롯해 풍담에서 초의까지. 만화에서 완호까지. 그 밖의 이름들. 조선조 억불의 시절을 살아낸 불명(佛名)들이 시절을 용서한 듯 음각(陰刻)의 깊이를 낮추고, 용서마저도 떠난 이름들은 하나 둘 부도를 떠나기 시작했다. 겨울바람이 장송의 그림자를 흔들고, 스승과 제자의 이름이 한 햇살에 젖고 있다. 땅 끝에 있는 대흥사다.

대흥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426년 신라의 정관 스님이 창건한 만일암이 시작이라 설과 544년 아도의 창건설, 508년 이름이 전하지 않는 비구가 중창했다는 설이 있다. 임진왜란 때 서산 대사가 거느린 승군의 총본영이 있었으며, 1604년(선조 37) 서산 대사의 의발(衣鉢)이 전해진 후 크게 중창됐다. 억불의 탄압 속에서도 대흥사는 많은 선지식을 배출했다. 풍담 스님으로부터 초의 스님에 이르기까지 13 분의 대종사와 만화 스님으로 시작해 범해 스님에 이르는 13 분의 대강사를 배출했다.

“내가 시작(示寂)한 뒤에 의발을 호남도 해남현 두륜산 대둔사(대흥사의 옛 이름)에 전하여 제사날에 재를 받게 하라.” 묘향산 원적암에서 정진 중이던 서산 스님은 원적에 든다. ‘80년 전에는 네가 나이더니 / 80년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스님의 마지막 시(詩)다. 스님의 의발은 대흥사에 모셔진다. 그리고 그의 범패이 대흥사에서 꽃을 피운다. 그 꽃들이 부도밭에 피어있다.

바람이 분다. 차가운 바람 앞에 초의 스님이 앉았다. 찻잔 앞에 앉은 선사는 그 시절 차를 좋아했다. 선사가 좋아했던 ‘차’는 ‘선(禪)’이 되었다. 13 대종사 중 마지막 대종사. 마지막 꽃이다. 제자를 찾고 있는 걸까. 선사의 시선이 아직도 그 시절에 머무는 듯하다. 차가운 찻잔에 햇살이 고인다.

마지막이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대흥사에 가볼 일이다. 마지막이라고 불리는 한 선지식이 도량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량을 떠나지 않고 있는 스님의 형용사가 ‘마지막’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스님의 뒤를 누군가 이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고맙고 따뜻한 일인 것 같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어간다는 것, 그 ‘누군가’가 있기에 세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마지막이란 없는 것이다. 빛깔 잃은 개망초들이 겨울바람을 견디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대흥사 전경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님이나 불자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는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뵈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기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